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이 지 연[†] 이 은 설

이화여자 대학교

본 연구는 데이트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의 피해와 가해 과정을 설명하는 설명 모형을 세우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심리적 변인을 고려한 결과 강간통념, 성역할 수용, 성적 자기 주장성,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 등이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 있는 주요한 변인들이었다. 이러한 변인을 고려하여 SEM을 이용하여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설명모형을 세웠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수용과 남성위주의 강간통념의 내면화, 데이트 성폭력 상황에 대한 낮은 인식이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성폭력의 가해에 이르게 한다는 가해모형과 전통적인 성역할의 수용과 남성위주의 강간통념의 내면화, 데이트 성폭력 상황에 대한 낮은 인식이 데이트 상황에 있는 여성의 성적 자기 주장성을 약화시켜 성폭력의 피해경험을 높인다는 피해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AMOS 4.0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질문지는 서울소재 S대학의 남녀 대학생 989명에게 실시되었으며, 데이트 경험이 있거나 데이트 중인 남학생 517명, 여학생 428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가해모형의 검증결과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이 가해 행동을 유발한다는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간통념의 수용이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을 거쳐 가해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모형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의 수용이 여성의 성적 자기 주장성을 약화시켜 데이트 상황에서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위주의 강간통념의 수용이 성적 자기 주장성을 약화시켜 피해를 증가시키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성폭력, 강간통념, 성역할 수용, 성적 자기 주장성, 데이트 상대 통제 경향

이지연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이은설은 석사과정 중에 있음.

[†] 교신저자 : 이 지 연, (120-75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이화여자대학교
전화 : 02-3277-4645, E-mail : becoming@ewha.ac.kr

대학생들의 성행동 경험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70% 이상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48% 정도가 애무이상의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향숙, 2001). 이러한 이성교제의 상황에서 각자의 성적 관심이나 성행동의 요구수준이 다를 때, 성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성적 갈등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응낙, 데이트 성폭력 등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유외숙, 박경, 2004; 안귀여루, 2001; 장희숙, 조현각, 2000). 따라서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개입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데이트 행동에 착수하는 시기에 접어든 대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성교제 안에서의 성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연구되는 성폭력의 한 유형인 데이트 성폭력과 부부강간에 대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데이트 성폭력은 성적으로 흥미를 가진 파트너가 상대방의 “싫다”라는 말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성적 응낙을 받아내기 위하여 심리적인 압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트 성폭력의 발생 상황,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Hogben, 2000; Koss, 1993; Rapaport & Burkhart, 1984). 성폭력 실태 분석에 따르면 가해자의 6.3%~9.1%가 데이트 상대인 것으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 꽤 많음을 알 수 있다(한국성폭력 상담소, 2000-2003).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성교제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애무를 응낙한 대학생은 20% 이상이었으며 성교를 응낙한 학생도 14.9%~19.4%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에서

성 욕구의 차이로 인한 성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숙, 2001; 한경순, 함미영, 2000). 또한 서경현, 이경순(2002)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생의 30% 이상이 데이트 성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성교제에서 파트너의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이 분야의 정상담과 성교육에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제이다.

이미 서양의 경우 데이트 성폭력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데이트 성폭력이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Levy, 1990). 국내 연구에서도 이성교제 상황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력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안귀여루, 2001; 유선영, 2000; 이영숙, 1998; 장희숙, 조현각, 2001). 국내 여대생의 약 50.7%가 이성교제 상황에서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선영, 2000),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21%(김용미, 1996)에서 52%(김정란, 19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희숙과 조현각(2000)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폭력 중 전체의 17.7%가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고 보고했다.

데이트 성폭력의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성간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데이트 중에 폭행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re, Hentonm,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유외숙, 박경, 2004).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Warshaw, 1988). 이 같은 현상은 데이트 시 일어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어떤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변인임을 암시한다.

한편 Riggs와 O'Leary(1989)는 데이트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성교제 중에 발생하는 폭력과 관련된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적 요인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경험한 폭력,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성격특성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상황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관계 내 갈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성별, 범죄경력, 사회적 지지도, 통제력,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성차별적 태도, 성장기 가정 폭력 노출 경험, 성격특성 등이 데이트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장희숙, 조현각, 2001; 안귀여루, 2002).

보다 구체적으로 Burt(1990)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간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으로서 강간통념(rape myth)은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상대적 우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생성되며 남성들이 여성을 폭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 둘째 가해자의 성충동을 정당화하는 것, 셋째, 강간도 성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강간통념척도는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Burt, 1980; Feild, 1978). 또한 이성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남성주도의 성역할에 대한 스크립트(scripts)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다(Muehlenhard & Linton, 198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강간통념의 수용이 폭력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석재(1999)의 연구결과는 강간통념이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자 대학생과 죄수를 대상으로 강간통념의 수용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강간통념을 많이 수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행동과 성폭력 경험이 많다고 보고했다. 강간범과 남자대학생 중 성폭력 경험이 있거나 또는 체포되지 않은 경우 강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남자들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다(Malamuth, 1981). 또한 이석재, 최상진의 연구(2001)에서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대학생 일수록 성행동과 성폭행의 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강간통념이 데이트 성폭력 외 다른 새로운 성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성적 자율권이 낮은 경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성적 자율권은 관계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지칭하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성폭력을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을 반영한다(신상숙, 2001). 성적 자기 주장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서 성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감정의 균형, 자신의 이득, 자신의 자부심, 사회적으로 떳떳함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치않는 성접촉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성적 자기 주장은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로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접촉을 피할 수 있는 상황적 분별

력과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전국의 십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장순복 외의 연구에 따르면 성접촉, 성교, 임신, 유산 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 십대 여성들보다 성적 자기 주장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장순복, 김소아자, 한인영, 박영주, 2000). 특히 이성교제를 하는 여학생들 중에 성접촉을 경험한 군의 성적 자기 주장 정도가 성접촉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성접촉의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성적 자기 주장 정도는 더욱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한 미혼모집단이 미혼모가 아닌 집단에 비하여 성적 자기 주장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장순복 외,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여성의 높은 성적 자율성이 데이트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에 실제 성적 자기 주장이 어느 정도 데이트 성폭력 발생을 줄일 수 있는지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개인의 동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응한 경우는 이 후에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 파트너와의 성관계에서 자신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파트너의 요구에 응한 자신에 대한 분노나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자존감의 손상 같은 정서적인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정서 경험들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허용은 추후의 데이트관계에서 보다 쉽게 성폭행을 당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Impett & Peplau,

2003).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적 타협을 필요로 할 때 관계통제나 의사결정권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며, 이러한 요인은 성적 협상능력을 좌우하게 되고, 특히 여성의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협상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Amaro, 1995; Pulerwitz, Gortmaker, & DeJong, 2000; Wingood & DiClemente, 1998, 2000). 또한 성별에 근거한 힘의 불균형이 성행동의 형태나 빈도에서 차이를 나타나게 하였다(Amaro, 1988, Wood & Price, 1997). 그리고 성관계권력은 콘돔사용에 대한 커플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관계의 역동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Harvey, Beckman, Browner, & Sherman, 2002; 유외숙, 박경2004).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관계 내의 힘의 불평등 가운데,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이 데이트 성폭력 발생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커플관계에서의 성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선정하고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가설적인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예를 들어, 유외숙 외(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을 설정하여 애착, 성관계 권력, 관계 몰입의 차이, 응낙동기, 성관계 빈도 및 교제기간 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의 발생에 초점을 둔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데이트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연구는 데이트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혹은 강압적으

로 성적 폭력에 노출되는 내담자들의 상담에 활용될 수 있다. 또, 상담자가 관계맥락 속에서 내담자의 성행동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통찰을 도우며 관련 특성이 낮거나 높은 내담자에게 폭력피해 및 가해의 가능성을 주지시키고 예방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해자, 피해자 상담에서 피해 및 가해경험을 개념화하는 과정은 이에 대한 해결 과정을 조력하는 것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변인으로 강간통념, 성역할 수용도와 관계변인으로 데이트 상대 통제 경향,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설명 모형을 설정하고 이 변인간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변인으로 성역할 수용도와 강간통념, 관계변인으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적 자기 주장성이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설명 모형을 설정하고 변인간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모형은 성역할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강간통념을 주요 변인으로 하고 이를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이 매개하여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를 유발할 것이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수용하고, 남성 위주의 강간통념을 내면화하고, 성폭력이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데이트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고 이것이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 행동을 유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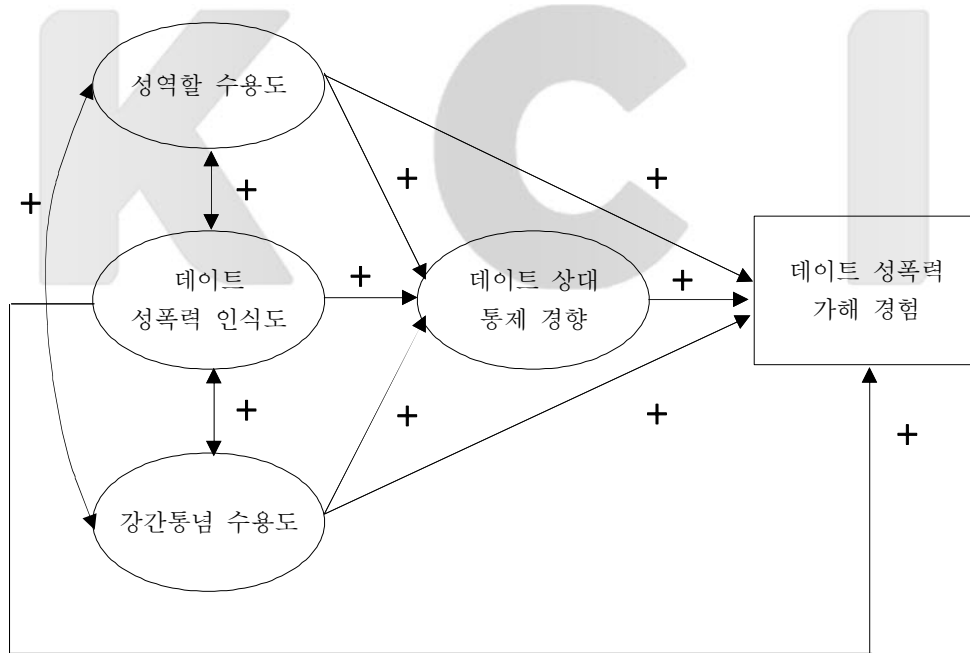


그림 1. 데이트 성폭력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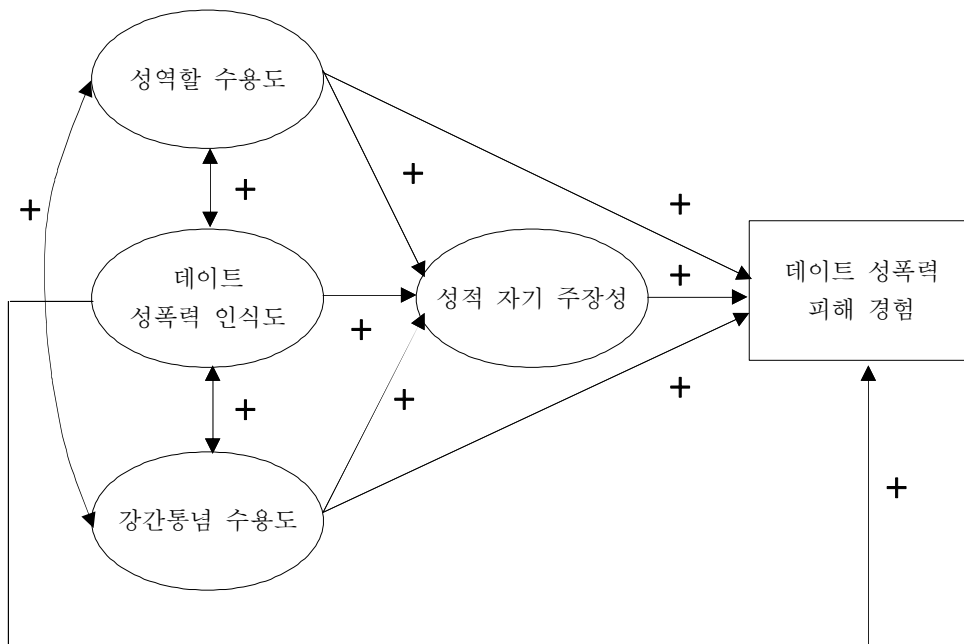


그림 2.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설명모형

가설 2.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모형은 성역할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강간통념을 성적 자기 주장성이 매개하여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수용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남성위주의 강간통념을 내면화할 수록 성적 자기 주장성이 낮아져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 상황이 유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가설 모형은 그림과 같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의 S대학 학생들이며, 성별과 전공을 고려하여 층화표집 하였다. 수거된 전체 989부의 설문지에서 데이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44부를 제외하고 945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성별분포는 남학

생 517명(54.71%), 여학생 428명(45.29%)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198명(20.95%), 2학년이 219명(23.17%), 3학년이 245명(25.92%), 4학년이 283명(29.95%)였다.

응답자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불교 9.8%, 개신교 24.7%, 카톨릭 23.3%, 무교 및 기타 40.8%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현재 주거지 형태는 부모님과 자택에 거주한다는 응답자가 65.9%, 자취, 하숙 및 기숙사 거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한다는 응답자가 29.3%, 친척집 2.2%, 기타 2.6%였다. 남학생의 66.9%가 군복무를 필한 상태였다. 질문지는 서울 소재 S대학교의 심리학, 여성학 교양과정 수업시간에 실시되었다.

연구도구

성역할 이데올로기 척도(Sex-role Ideology Scale)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2001)가 Kalin과 Tilby(1978)의 연구에서 사용된 Sex-role Ideology Scale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김정인 외(2001)의 타당화 과정에서 19문항으로 조정되었으며,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고정관념” 요인, 직업능력개발과 경력 문제를 언급한 “경력개발” 요인, 사회에서 남녀의 공평한 대우를 강조하는 “대우평등” 요인, 이성교제에서의 성적 자유 혹은 남녀 평등을 언급한 “성적평등”의 4가지 요인으로 전체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전체변량은 60.77%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보고된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 .73, .66, .59였다. 각 척도의 문항들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졌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Sex-role Ideology Scale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요인별로 .85, .65, .66, .56였다.

데이트 상대 통제 척도(Appraisal of Partner Control Scales: APCS)

남성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상황에서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성은 Ehrensaft와 Vivian (1999)의 APSC의 4가지 문항을 장희숙, 조현각(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APCS 원척도는 4개 문항에 대해서 7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hrensaft외(1999)에 따르면 APCS는 하나의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남녀차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원판에서 보고된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로 높은 편이나, 장희숙 외(2003)의 연구에서는 .50으로 낮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데이트 상대 통제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4문항에 대해 4점 척도(1: 거의 없었다, 4: 매우 자주 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1로 나타났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응답자들이 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남현미(2003)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두 13가지 문항으로 심리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성적 폭력의 3가지 수준으로 나누었으며, 4점 척도(1: 매우 심각한 성폭력이다, 4: 성폭력이라 할 수 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성폭력의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수준별로 .82, .83, .69으로 나타났다.

강간통념

강간통념 질문지는 서울대 2003년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2004)의 질문지와 김정인 외(2001)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성에 관한 의식과 태도(예,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 이성교제 중에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 성각본(예, 여자는 성행동시 남자가 터프하기를 기대한다, 여자가 성관계에 대한 의

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고정관념(남자는 남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어야 한다, 성적 접촉의 시도는 아무래도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25문항이다.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강간통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강간통념을 많이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성적 자율성 척도

데이트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의 피해 상황을 줄일 수 있는 성적 자기 주장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적 자율성 척도(여성 민우희, 2003)를 사용하였다. 성적 자율성 척도는 전체 15문항으로 일반적 상황의 자기주장(예, 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죄책감을 느낀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지 걱정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는다)과 성적 상황의 자기주장(예, 나는 나의 성적인 지식이나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1: 매우 그렇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 주장성, 성적 자율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8로 나타났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데이트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은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경험 설문을 바탕으로 13가지 문항에 경험의 유무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심리적, 언어적 폭력(예,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신체적 접촉(예,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애무를 한 적이 있다), 심각한 성적 폭력(예,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방법

본 조사는 200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서울소재 S 대학의 심리학 교양과정 수업시간을 활용하였다. 조사자가 해당 수업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시, 수거하였다. 수거된 전체 989부의 자료 중에서 데이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44부를 제외한 총 945부(남학생 517명, 여학생 428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과 AMOS 4.0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형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와 성별에 따라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측정변인들의 점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성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통해 관련 변인들 간의 설명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보고한 데이트

표 1. 남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N=517)

	가해 경험			
	유		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심리적, 언어적 폭력	220	42.6	297	57.5
신체적 접촉과 같은 경미한 성적 폭력	281	54.3	236	45.6
강압적 성관계와 같은 심각한 성적 폭력	106	20.5	411	79.5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 경험	384	74.3	133	25.7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의 빈도 및 백분율은 표 1, 표 2에 제시되었다. 가해 경험이 있음을 보고한 남학생이 74.3%였음에 비해, 피해 경험을 보고한 여학생은 39.4%였다.

설명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인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경향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

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매우 유의미했다. 데이트 상황에서 이성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남자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역할 수용도나 강간통념의 남녀 차

표 2. 여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N=428)

	피해 경험			
	유		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심리적, 언어적 폭력	137	32.0	291	68.0
신체적 접촉과 같은 경미한 성적 폭력	53	12.4	375	87.6
강압적 성관계와 같은 심각한 성적 폭력	26	6.0	26	93.9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 경험	169	39.4	259	60.6

표 3. 설명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기술적 결과와 성차 (N=945)

변인	남자(n=517)	여자(n=428)	t
	평균(SD)	평균(SD)	
성역할 수용도	51.20(10.71)	37.91(8.77)	32.41**
데이트 성폭력 인식	23.09(6.49)	20.92(5.26)	14.47**
강간통념 수용도	62.46(14.32)	48.76(10.67)	62.27**

**p<.01

표 4. 남학생의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1. 성역할 수용도	-				
2.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32**	-			
3. 강간통념	.55**	.56**	-		
4. 데이트 상대 통제 경험	.23**	.23**	.33**	-	
5. 성폭력 가해 경험	.16**	.27**	.30**	.49**	-

** $p < .01$

에 비해 그 차이가 작은 편이었다. 강간통념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매우 높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의 상관표는 남녀별로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은 대체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 집단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에 대한 경로 분석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남성 위주

의 성적 통념의 수용과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의 내재화, 낮은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가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이 두 변인이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성이라는 매개변수를 만나서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를 유발하게 된다는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을 세웠다.

이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로서 $\chi^2(81)$ 는 254.12이고 이는 유의도 수

표 5. 여학생의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1. 성역할 수용도	-				
2.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24**	-			
3. 강간통념	.55**	.35**	-		
4. 성적 자기 주장	.44**	.24**	.45**	-	
5. 성폭력 피해 경험	-.05	.13**	-.04	-.02	-

** $p < .01$

표 6. 데이트 성폭력 가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가설모형	254.12	81	0.00	3.11	0.94	0.95	0.064

준 .01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χ^2 는 사례수에 매우 민감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이용해서 모형의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TLI(Turker-Lewis Index)는 절대 적합도 지수(Goodness-of-fit-measure)의 한 종류이고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형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9 이상 이면 적합한 모형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도 절대적합지수의 한 종류이고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델이며 .9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부적합을 측정하는 절대적합지수의 일종으로 .05이하일 때, 적합한

모형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08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홍세희, 2001).

분석 결과 가해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CFI에서 각각 0.94, 0.95으로 나타났고, 부적합을 측정하는 절대적합지수인 RMSEA에서는 .064(90% 신뢰구간에서 .056-.073)으로 합리적인 모형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설명모형의 경로와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그림 3에 제시되었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수용이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데이트 성폭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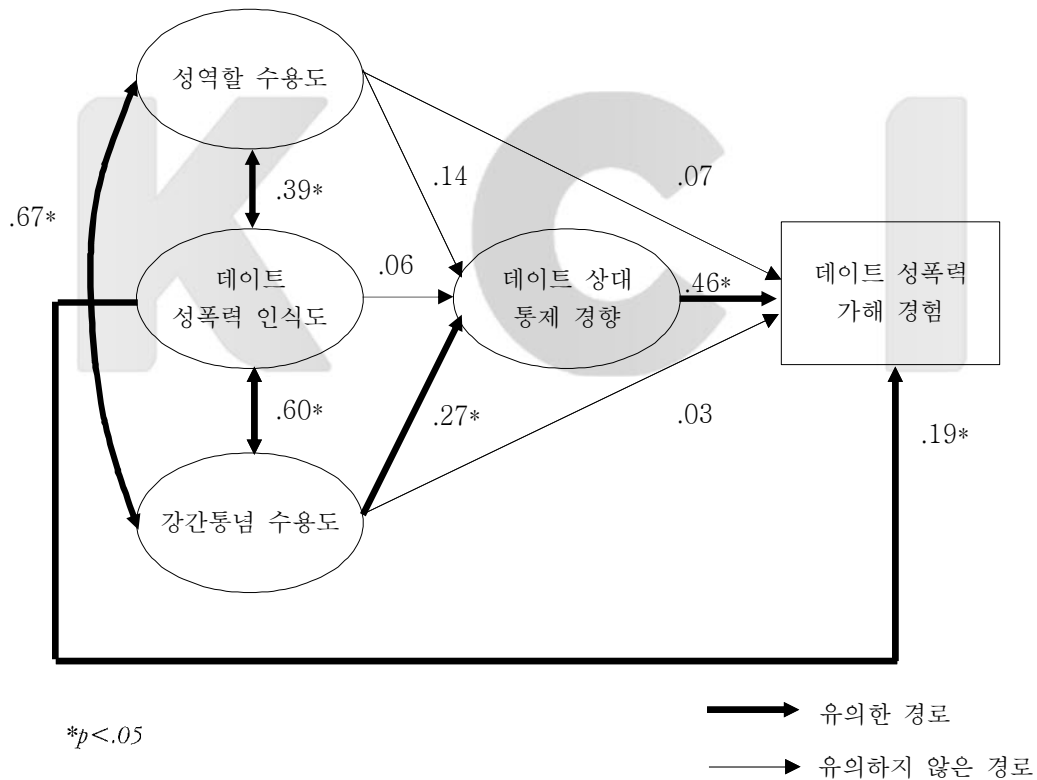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의 결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에 대한 모형

표 7. 데이트 성폭력 피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가설모형	189.54	56	0.00	3.38	0.90	0.93	0.075

식도는 데이트 성폭력 가해에 유의미한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위주의 강간통념의 수용이 데이트 성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을 통하여 데이트 성폭력 가해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남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행동에 이르는 설명모형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강간통념이 높을수록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성이 높아지고, 통제 경향이 높아질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를 많이 하게 된다. 또한 남학생의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은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학생 집단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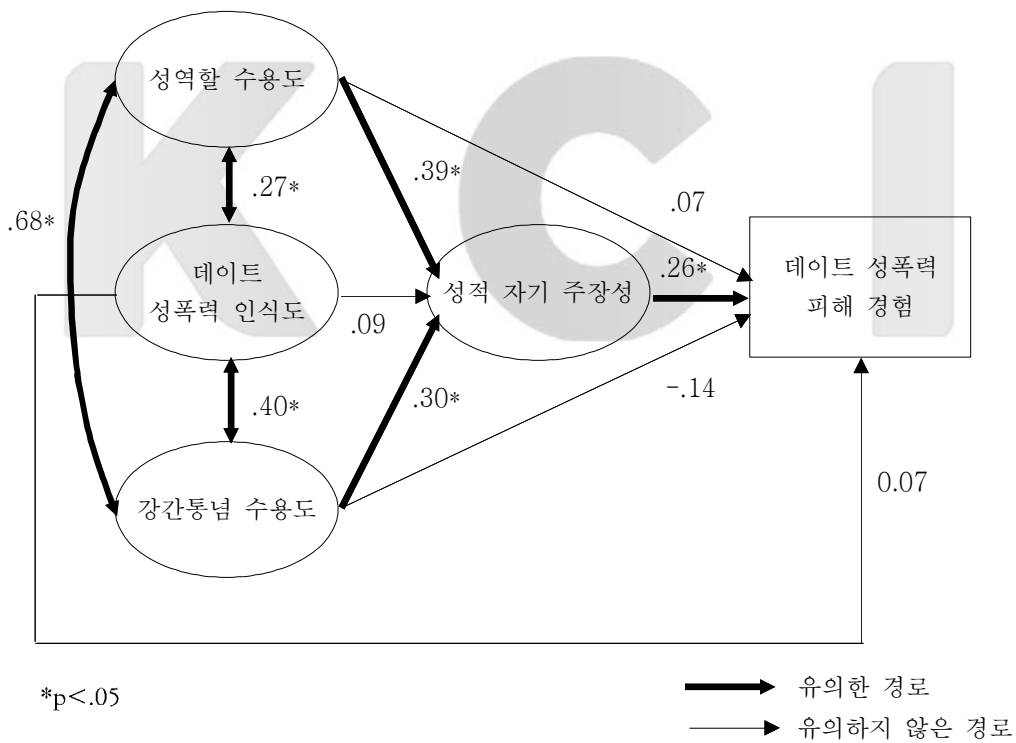


그림 4. 구조모형의 결과: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설명모형

여학생의 전통적인 성역할의 수용, 남성 위주의 강간통념의 수용, 낮은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가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성을 매개하여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에 이르게 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구조 모형의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로서 $\chi^2(56)$ 는 189.54이고 이는 유의도 수준 .01에서 유의하다. 절대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에서 각각 0.90, 0.93으로 나타났고, RMSEA에서는 .075(90% 신뢰구간에서 .063-.087)으로 합리적인 모형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설명모형의 경로와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그림 4에 제시되었다. 그림 4에 나타난 분석결과 전통적인 성역할의 수용이 여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통적인 성역할의 수용이 성적 자기 주장성을 낮게 하여 데이트 성폭력에 이르게 하는 정적인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성폭력의 인식도가 피해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강간통념의 수용이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 위주의 강간통념의 수용이 성적 자기 주장을 억제해서 피해에 이르게 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여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 행동에 이르는 설명모형은 그림 4와 같다.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많이 수용할수록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 주장성이 낮아지고, 성적 자기 주장을 못할수록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가 높아진다. 또한 여성이 남성 위주의 강간통념을 내면화할수록 성적 자기 주

장성이 낮아지고, 낮은 성적 자기 주장성은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높인다.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강간통념의 수용은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성을 높여 데이트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하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이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적 행동들이 데이트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모형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실제 데이트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강간통념과 같은 인지적 변인들이 데이트 상황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강간통념과 성폭력 행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이석재, 1999, 이석재, 최상진, 2001; Malamuth, 1981)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강간통념, 데이트 성폭력의 인식 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폭력의 개념들을 얼마나 자각하는지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대의 동의나 의사 확인 없이 일어나는 폭력 발생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수용이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 주장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성폭력 피해 상황으로 귀결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의 수용이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가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남성의 결과와는 다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뿐 아니라 실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예방 교육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넷째, 강간통념이 성적 자기 주장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성폭력 피해 상황이 되게 하는데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의 강간통념에 대한 비판없는 수용이 실제 성폭력 발생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들고 이후 치료나 상담개입에 있어 예후를 나쁘게 할 가능성을 말해준다.

피해 모형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성역할, 강간통념과 같은 인지적인 변인을 수용함으로써 실제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무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여성이 성적 자기 주장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십대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에서도 성접촉, 성교, 임신, 유산 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경험을 하지 않는 10대 여성보다 성적 자기 주장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들이 미혼모가 아닌 집단에 비하여 성적 자기 주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장순복 외, 2000). 성적 자기 주장은 의사소통 기술의 하나로 여성이 이성교제의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행동적 측면의 성교육의 한 부분이다. 성역할과 강간통념의 수용도, 낮은 성폭력 인식도와 성적 자기 주장 능력 간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은 이러한 인지적 변인들이 이성 교제시 벌어지는 성적 다툼의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는 것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야기되는 성적 갈등문제를 상담할 때나 지도할 때, 후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적절한 성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성적 자율성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장순복과 이선경, 김영란(2003)의 연구에 따르면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 주장 훈련을 한 결과 성적 자기 주장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본격적인 연애에 돌입하는 시기인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데이트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심리내적 동기들의 탐색과정은 상담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내담자가 관계맥락 속에서의 성행동을 이해하고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자기이해와 통찰을 하도록 돕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개별 변인들(Hogben, 2000; Koss, 1993; Rapaport & Burkhart, 1984)을 실제 가해 및 피해의 설명모형으로 검증한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 상황에서 성역할 태도, 강간통념의 수용, 성폭력 인식도와 같은 인지적 변인이 작용함을 밝힌 데 있다. 앞으로의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의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강간통념,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킴으로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칫 간과하게 될 수 있는 폭력의 개념들을 지각하게 하고, 상대의 동의나 의사확인 없이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

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의 성적 자기 주장성이 데이트 성폭력 피해의 중요한 변인임이 나타남으로써, 앞으로의 예방교육에서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 자기 주장능력, 의사소통 기술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제안되어온 성역할 수용, 강간통념, 성폭력 인식도, 데이트 상대 통제 경향, 성적 자율성을 변인으로 하는 가해와 피해 모형을 발달단계상 이성교제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종단적으로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상의 사회심리적 변인들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겪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강간통념, 성역할, 성폭력 인식도 등 주로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변인으로 구성된 모형을 검증하였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 의존, 애착과 같은 개인의 심리 내적 변인을 포함한 모형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인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생리적, 심리적, 가족과 또래의 영향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다양한 영향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 권력이나 관계몰입, 성적 스크립트, 갈등 관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인들을 포함한 데이트 성폭력 모형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통해 데이트 성폭력의 기제를 분명히 알고 상담과 집단상담 및 지도에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미 (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성희롱문제 시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 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2.
- 김향숙 (2001). 대학생의 애착, 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현미 (2003). 대학생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353-368.
- 안귀여루 (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3), 21-42
- 안귀여루 (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5-75.
- 여성 민우회 (2003). *성폭력 가해자 상담 매뉴얼*. 서울: 여성민우회.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이성교제폭력 피해간의 매개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외숙, 박경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 모형 - 대학생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 이영숙 (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 가정학회지, 36(4), 49-61.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 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7-202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131-148.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5-116.
- 서울대성희롱성폭력상담소 (2004). 2003년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 신상숙 (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6-43.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주, 박영주 (2000). 십대 소녀의 임신률, 예방대책. 「청소년보호 위원회보고서」.
- 장순복, 이선경, 김영란 (2003). 여고생의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 참여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3(5), 659-667.
- 한경순, 함미영 (2000).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15-131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33호(2000)~46호(2003).
- Amaro, H. (1988). Considerations for prevention of HIV infection among Hispanic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4), 429-443.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ate, R. M., Henton, J. M., Koval, J.,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Ehrensaft, M. K., & Vivian, D. (1999). Is partner aggression related to appraisals of coercive control by a partn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3), 251-266.
- Field, H.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Harvey, S. M., Beckman, L. J., Browner, C., & Sherman, B. C. (2002). Relationship Power, decision making, and sexual relations: an exploratory study with couples of Mexican origin. *Journal of Sex Research*, 39(4), 284-291.
- Hogben, H. (2000). Patterns of Conflict Resolution Within Relationships and Coercive Sexual Behavior of Men and Women.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43(5/6), 341-357.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 Kalin, R., & Tilby, P. J.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x role ideolog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42, 731-738.
- Koss, M. P. (1993). Detecting the scope of rape: A review of prevalence research metho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 198-222.
- Levy, B. (1990). *Dating Violence : Young women in danger*, Seal press.
- Malamuth, N. M. (1981).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37, 138-157.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ing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34, 186-196.
- Pulerwitz, J., Gortmaker, S. L., & DeJong, W. (2000) Measuring sexual relationship power in HIV/STD research. *Sex Roles*, 42(7/8), 637-660.
- Rapaport, K., & Burkhart, B. (1984).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coercive college ma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16-221.
- Riggs, D. S., & O'leary, K. D. (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Pirog-Good and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raeger Pub.
- Warshaw, R. (1988). *I never called it rape*. New York: Haper & Row.
- Wingood, G. M., & DiClemente, R. J. (1998). Partner influences and gender-related factors associated with noncondom use among young adult African-American wo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6(1), 29-53.
- Wingood, G. M., & DiClemente, R. J. (200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Gender and Power to examine HIV related exposures, risk factors and effective interventions for women. *Health Education & Behavior*, 27(5), 539-565.
- Wood, M. L., & Price, P. (1997). Machismo and marianismo: Implications for HIV/AIDS risk reduction and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ciences*, 13(1), 44-52.
- 원 고 접 수 일 : 2005.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5. 4. 14
게 재 결 정 일 : 2005. 5. 6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Jee-Yon Lee

Eun-Sul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 of present study is to test and explain the theoretical models of dating sexual violence that based on the psychological variables reportedly related with former researches.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selected the variables that related with dating sexual violence: sex-role acceptance, rape myth, awareness of sex-dating violence control, and sexual self-assertiveness and hypothesized models. The models of dating sexual violence and victimization are as follows. a sexual violence model postulates that males are likely to violate their dating partners when they have traditional sex-role acceptance, rape-myth, low degree of dating violence awareness. And, partner control, as mediating variable, mediates these three variables toward sexual violent behavior in dating relationship. Sexual victimization model postulates that females who have traditional sex-role acceptance, rape-myth, low degree of dating violence awareness are likely to be violated by their dating partners. And, sexual self-assertiveness, as a mediating variable, mediates these three variables toward sexual victimization in dating relationship. The models were estimated with AMOS 4.0. For this study, 989 college student were selected as a samples.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uggested that partner control in sexual violence model mediated between the acceptance of rape myth and sexually violent behavior. Moreover, sexual self-assertiveness in sexual victimization model mediated between both the acceptance of rape myth and sex-role acceptance and sexual victimization in dating relationship.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and psychotherapy practice.

Key Words : dating violence, rape myth, sexual relationship, sex-role acceptance